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3. 10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3 / 10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나그네길에서

처음 마음으로 8 깨달음의문

천진난만 13 거듭되는 삶

맑고 향기롭게 14 상처투성이 삶에서 한 줄기 행운을 만나다

2013년 의료비 지원 사례 16 기말 곳 없던 다문화 가정 아이에게 희망을!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18 막이 오르면 연기는 배우에게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4 아름다운 마무리-이선에 어르신

참교육 이야기 26 학부모는 학교에서 어떤 존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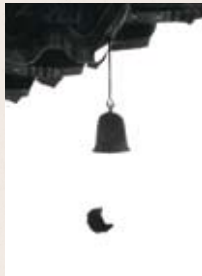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0 그 사람 같은 작품들 - 구본주와 이운엽을 보라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34

차내음가득한시간 36 吾心之茶 오심지차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9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6



풍경은
바람 없이는
한시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법정-

표지 사진 · 회원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224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051)898-2672~3 / 대전모임: (042)823-0770 / 경남모임: (055)266-0710 /

광주모임: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나그네길에서

글 • 법 정(法 頂)

사람들의 취미는 다양하다. 취미는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여백이요 탄력이다. 그러기에 아무개의 취미는 그사람의 인간성을 밑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개인의 신체적인 장애나 특수사정으로 문밖에 나서기를 꺼리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대개의 경우 여행이란 우리들을 설레게 할 만큼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호주머니의 실력이나 일상적인 밥줄 때문에 선뜻 못 떠나고 있을 뿐이지 그토록 흥가분하고 마냥 설레는 나그네 길을 누가 마다할 것인가.

허구한 날 되풀이되는 따분한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다. 봄날의 노고지리가 아니더

라도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휘파람이 새어나온다.

훨훨 떨치고 나그네 길에 오르면 유행가의 가사를 들출 것도 없이 인생이 무어라는 것을 어렵듯이나마 느끼게 된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끌고 아득한 지평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나날의 내 자신을 이만치서 바라볼 수 있다. 구름을 사랑하던 혜세를, 별을 기리던 생텍쥐페리를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낮선 고장을 헤매노라면 더러는 옆구리끼로 허허로운 나그네의 우수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간다.

지난해 가을, 나는 한 달 가까이 그러한 나그네 길을 떠돌았다. 승가의 행각은 세상 사람들의 여행과는 다른 데가

있다. 볼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운수행각(雲水行脚)이라고 한다.

예전부터 선가(禪家)에서는 석 달 동안 한 군데서 안거하고 나면 그다음 석 달 동안은 행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각은 관광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유동(流動)하면서 교화하고 정진할 수 있는 기회다. 말하자면 덧없는 세상 물정을 알면서 수행하라는 뜻에서다.

행장을 풀고 하룻밤 쉬는 곳은 물론 우리들의 절간. 두어 군데 말고는 다들 낮은 사원이었다. 해질녘 절 동구길에서 듣는 만종(晩鐘) 소리와 발을 담그고 땀을 들이는 차가운 개울물, 객실에 들어 오랜만에 만난 도반과 회포를 풀면서 드는 산다(山茶)의 향기가 나그네의 피로를 다스려주곤 했었다.

이렇게 지난 가을 동으로 서로, 그리고 남으로 발길이 닿는 대로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입산 이후 도정(道程)의 자취를 되새겨보았다. 그때마다 지

간 날의 기억들이 저녁 물바람처럼 배어들었다. 더러는 즐겁게 혹은 부끄럽게 자신을 객관화 시켜주었다.

그러면서도 단 한 군데만은 차마 가 볼 수 없는 데가 있었다. 아니 참으로 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가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구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또한 빈틈없는 정진으로 선열(禪悅)을 느끼던 그런 도량이라 두고두고 아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리산에 있는 쌍계사 탑전(塔殿)!

그곳에서 나는 16, 7년 전 은사인 효봉선사(曉峰禪師)를 모시고 단둘이서 안거를 했었다. 선사에게서 문자를 통해 배우기는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한 권 밖에 없었지만, 이곳 지리산 시절 일상생활을 통해서 입은 감화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 시절 내가 맡은 소임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찬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진 시간이 되면 착실하게 좌선을 했다. 양식이 떨어지면 탁발을 해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50리 밖에 있는 구

레장을 보아왔다.

하루는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설을 한 권 사왔었다. 호손의 주홍글씨라고 기억된다.

아홉 시 넘어 취침시간에 지대방(고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켜놓고 책장을 펼쳤다. 출가한 후 불경 이외의 책이라고는 전혀 접할 기회가 없던 참이라 그때의 그 책은 생생하게 흡수되었다. 한참을 정신없이 읽는데 방문이 열렸다. 선사는 읽고 있던 책을 보시더니 단박 태워버리라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출가가 안 된다고 했다. 세속에 미련이 없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그 길로 부엌에 나가 태워버렸다. 최초의 분서(焚書)였다. 그때는 죄스럽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었지만, 며칠 뒤에 야 책의 한계 같은 걸 터득할 수 있었다. 사실 책이란 한낱 지식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 거기에서 얻은 것은 하나의 분별(分別)이다. 그 분별이 무분별의 지혜로 심화되려면 자기 응시의 여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전까지 나는 집에 두고 나온 책 때문에 꽤 얽치락뒤치락거렸는데, 이 분서를 통해 그러한 번뇌도 함께 타버리고 말았다. 더구나 풋내기 사문에게는 온갖 분별을 조장하는 그런 책이 정진에 방해될 것은 물론이다. 만약 그때 분서의 건(件)이 없었더라면 책에 짓눌려 살았을지도 모른다.

또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찬거리가 떨어져 아랫마을에 내려갔다가 낮 공양 지을 시간이 예정보다 십 분쯤 늦었다. 선사는 엄숙한 어조로 "오늘은 단식이다.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서 되겠니?" 하는 것이었다.

선사와 나는 그 시절 아침에는 죽을, 점심때는 밥을 먹고, 오후에는 전혀 먹지 않고 지냈었다. 내 불찰로 인해 노사(老師)를 굶게 한 가책은 그때뿐 아니라 두고두고 나를 일깨웠다.

이러한 자기 형성의 도량을 차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보나마나 관공지로 주저앉았을, 고등고시 준비를 위한 사람들의 별장쯤으로 빛이 바래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그네 길에 오르면 자기 영혼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지내고 있는지, 내 얼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행이 단순한 취미일 수만은 없다. 자기 정리의 엄숙한 도

정이요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할 연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71

- 영혼의 모음 중에서

「맑고 향기롭게」 회원, 봉사자를 위한 수련회 알림 11월 16일(토) ~ 11월 17일(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마음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1월 셋째 주말에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법정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사장스님의 좌선강의와 회원들 간의 차담, 모임의 여러 활동을 공유하고 저마다의 청정함을 통하여 맑고 향기로운 운동이 사회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로 마련하였습니다.

참가조건은 본모임 회원과 자원봉사자에 한해서이며, 참여 인원은 70명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참가와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의 참가비를 두었으며, 기념으로 법정스님 저서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일정 : 11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 17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참가비 : 수도권(서울, 경기) - 20,000원, 비수도권 - 10,000원
- 참가 조건 : 후원 회원, 정기 자원봉사자에 한함
-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양말, 따뜻한 옷, 간편한 티셔츠, 개인물병 or 컵, 운동화나 단화, 필기도구
- 안내 사항 :
 - ① 전화 접수 시 성명, 성별, 연령, 회원유무, 연락처, 수련복 크기 등을 알려주세요.
 - ② 신청자 조회 후 회원이나 봉사자가 아닐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 10월 10일부터 전화, 방문, 봉사팀별 접수
- 문의 : 중앙 사무국 02)741-4696 / 홈페이지 참조

깨달음의 문

글 • 덕 윤(德 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때때로 괴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괴롭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고(苦)의 종류에는 3고(三苦)와 4고(四苦)와 8고(八苦)가 있습니다.

먼저 3고(三苦)는 고고(苦苦)와 괴고(壞苦)와 행고(行苦)가 있는데 첫째 고고(苦苦)는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름에서 오는 것으로 중생으로 태어나면서 근본적으로 느끼는 육체적 감각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둘째 괴고(壞苦)는 무너지거나 파괴됨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즐거움이 변해서 생기는 것으로서 지위나 명예가

무너지거나 아끼는 물건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셋째 행고(行苦)는 행위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이는 법(法)을 모르는 상태의 무지로 인해 생기는데, 즉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며, 자체 성품이 없는데 이와 같은 무자성(無自性)의 진실을 모르거나 잘못 알아서 생기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4고(四苦)란 인간이 원천적으로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또 8고(八苦)는 4고(四苦)에 오온개고(五蘊皆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를 더하여 8고라고 말합니다.

처음의 오온개고(五蘊皆苦)란 몸과 마음이 모두 고(苦)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추우면 옷 입어야지,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대소변도 봐야 하는 등등 이러한 원인으로 몸과 마음이 다 고(苦)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부득고(求不得苦)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것이 돈일수도 있고, 명예일수도 있고 그리고 예쁜 여자 또는 능력 있는 남자등 이성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구하는 바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이 괴롭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애별리고(愛別離苦)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부모형제일수도 있고, 이성일수도 있고, 친구일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같이 하지는 못합니다.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애별리고입니다.

네 번째는 원증회고(怨憎會苦)입니

다. 애별리고와 반대되는 것이죠. 이것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이외에도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로병사에 뿌리를 두고 수많은 번뇌가 생겨납니다.

108번뇌, 1080번뇌, 3000번뇌, 8만4천번뇌등 이러한 뿌리가 모두 생로병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발심을 통해서 수행(修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기경전의 교리 중에 사성제(四聖諦)를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성제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苦)성제, 집(

集)성제, 멸(滅)성제, 도(道)성제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성(聖)이란 말은 기록하다는 뜻이요, 제(諦)란 거짓 없는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행(行)하신 최초의 설법, 즉 초전법륜이 바로 이것입니다.

4성제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앞의 고(苦)와 집(集)의 이제(二諦)는 중생의 현실세계를 말함이고, 뒤의 멸(滅)과 도(道)의 이제(二諦)는 고(苦)를 여윈 성인의 이상세계를 말합니다. 좀 더 부연하면 현실세계의 결과가 고(苦)요, 그 원인이 집(集)이고, 마찬가지로 성인세계의 결과가 멸(滅)이요, 그 원인이 도(道)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위의 4성제를 세 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설(說)했다하여 이것을 삼전사제법륜(三轉四諦法輪)이라고도 합니다.

삼전사제법륜(三轉四諦法輪)의 첫 번째는 시전(示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苦)니라, 이것은 집(集)이니라, 이

것은 멸(滅)이니라, 이것은 도(道)니라”라고 설(說)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권전(勸轉)입니다.

이것은 수행(修行)을 권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苦)는 마땅히 알지니라, 집(集)은 마땅히 끊을지니라, 멸(滅)은 마땅히 증득할지니라, 도(道)는 마땅히 실천해 닦을지니라”라고 설(說)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전(證轉)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고(苦)는 내가 이미 알았노라, 집(集)은 내가 이미 끊었노라, 멸(滅)은 내가 이미 증했노라, 도(道)는 내가 이미 닦았노라”라고 설(說)하시며 사제의 도리를 알았음을 자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함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을 설(說)한 이유는 상근기는 최초의 시전(示轉)에서 깨닫게 하고, 중근기는 권전(勸轉)에서 깨닫게 하고, 하근기는 증전(證轉)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처님이 설(說)하신 사제법문(四諦法門)을 통하여 깨달

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깨닫고 도에 들어가는 이 사제법문(四諦法門)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근원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마음의 소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理致)를 몰라 바깥에서 신(神)을 찾고 계속해서 진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은 생활(生活)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겨나는 고통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니 이 모든 허물을 자신에게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삼세인과(三世因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업력(業力)에 의해 현재의 삶이 벌어졌고, 또 이 현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자신의 마음인줄 알아야 합니다.

전생(前生)의 삶에 있어 선업(善業)의 힘이 크냐, 악업(惡業)의 힘이 크냐

의 선악의 업의 힘에 따라 현재의 고(苦)의 경중이 결정되고, 그 고(苦)를 락(樂)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란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현재를 스스로 관조해보고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修行)을 부단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자기를 찾는 수행(修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독경하는 사람은 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돌이켜 경전의 뜻을 꾸준히 탐구하여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주력하는 사람도 일심불란하게 주력에 집중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하는 사람도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놓치지 말고 일심(一心)으로 화두를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 속에서 고(苦)를 벗어나려면 욕심을 줄이는 소욕지족(所欲知足)의 삶을 살아야 합니

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허망한 욕심에서 벗어나 현실의 삶에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바탕 속에서 꾸준한 수행을 통하여 게으름에서 벗어나 구도자적인 삶을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수행을 부단히 계속하게 되면 지혜와 자비심이 원만하게 구축되어

너도 나도 진실한 인격자가 되어 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헛된 욕망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불기 2557년 8월 초하루(2013년 9월 5일)

거듭되는 삶

맑은 만남(淸逢)



부딪히는 산속이면 취미가 되고,
취미가 거듭되면 노닐이 되고
노닐이 거듭되면 업이 됩니다
맑고 향기롭고 건강한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이 제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2013」 물질 나눔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10월 4일)

KBS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온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상입니다. 이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총 4개 부문에서 응모 원서가 접수됐고, 예심, 현지 공적 적격 조사, 본심, 공적 심사까지 총 7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활동,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 등을 회원 스스로 실천하는 시민운동의 모범사례로서 공적을 인정받았으며, 맑고 향기로운이 사회적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처 특성이 삶에서 한 줄기 행운을 만나다

글 • 김선미(대전서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신○○ 할머니는 월 47만원(기초 생활수급비, 노령연금, 장애수당 포함)의 정부지원금의 소득이 전무한 기초 생활수급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뒤늦게 재가하여 의붓아들 3명을 정성스레 키웠으나 1996년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모질게 버림을 받고 현재 연락 두절 상태로 할머니는 말 그대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크고 작은 상처로 눈물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낸 후 이제야 조금씩 새살이 돌아 상처의 깊이도 줄어들 즈음, 절망은 다시 한 번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담석제거 수술을 미루고 미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

어 찾은 병원에서 췌장의 암 덩어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 했지만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가난이라 했던가요? 할머니는 쉬이 수술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암 정밀검사를 위해 100만원이란 큰돈을 빌린 데다 300만원이 훌쩍 넘는 수술비에 입원비를 도저히 홀로 감당해 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같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하여 약간의 비용을 어렵사리 마련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같이 딱한 사정이 있고 넉넉치 못한 상황이지만,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를 위해 씹짓돈을 꺼내 놓았습

니다.

그렇게 7월 9일 할머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원위췌장절제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성공의 기쁨도 잠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건 당장 지불해야 할 수술비, 입원비 정산은 물론 퇴원 후 1~2개월 후 항암치료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였습니다. 쥐고 있는 돈은 적은데 나가야 할 돈은 그 배가 되니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역내 복지기관 역시 할머니의 의료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할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 소식이 한 줄기 빛과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의 사정을 빠짐없이 작성해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신청서를 발송하고 선정결과 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정결과

발표의 날, 간절함 바람은 할머니께 기적과도 같은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300만원이란 큰 지원금이 배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선정 소식에 비로소 할머니는 마음 편히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그간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애달프게 보내셨을 할머니의 시름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전달된 소중한 지원금 300만원은 이웃에게 빌린 수술·입원비, 중간 정산 후 정산하지 못한 미납액 약 100만원 결계에 사용했으며 남은 지원금 200만원은 차후 항암치료 필요 시 약 6개월간 월 40~60만원씩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건강상태호전으로 퇴원하였다가 영양부족(탈수)증세로 재입원하여 입원치료 중으로 1~2개월 뒤 혈액종양 내과와 상의 후 항암치료 여부를 결정 받아 수술 경과에 따른 치료수술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할머니께 일어났

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신○○할머니는 '보잘 것 없는 늙은이를 위해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분을 일일이 직접 찾아 뵙고 감사 인사 드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얼른 암을 이겨내고 건강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의지를 굳건히 하셨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희망의 기적을 실현해 주신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가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할머니가 쾌차하여 직접 감사인사를 전하는 날까지 어르신과 동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기댈 곳 없던 다문화가정 아이에게 희망을!

글 ● 용명희(경희의료원 사회사업실 과장)

효경이는 현재 청량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지역사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돌봐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아이가 집중력이 약간 부족하며 한국어가 서툴 뿐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조음장애)하여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습이 부진하였고 사시 교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효경이의 부모

님은 2003년도에 결혼하였고, 중국 교포였던 어머니는 8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효경이의 아버지는 오랜 지병인 간경화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해오던 중 2012년 7월 사망하는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효경이 가족은 아버지의 투병과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효경이 아버지는 결국 사망하였고, 치료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전

산을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효경이 가족은 전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 치료비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없어 국가지원(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야만 했으며, 아버지의 사망 후 친지들도 모자를 외면하여 생활비를 지원해주거나 돌봐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효경이 어머니는 일용직 일들을 전전하며 소액의 임금(월30~4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효경이의 양육 등으로 장시간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효경이 어머니는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지적장애가 의심되어 효경이의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효경이는 한국어가 모국어 아닌 모친의 영향과 아버지의 사망, 잦은 이사(마산-중국-서울)를 겪으며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학습 부진, 언어발달 지연, 조음장애, 사시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보여 왔습니다. 다행히

지역사회 관련기관(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동대문구청 사례관리 등)에서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본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언어 치료와 사시 수술에 대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효경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므로 빠른 시일 내 언어 치료와 정서적 측면의 전문적인 지지체제를 마련해준다면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효경이에게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은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었고, 효경이 가정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효경이가 집중적인 치료의 기회를 언어 하루 빨리 학교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남편과 사별 후 한국 땅에서 외아들을 양육하며 가장으로 살아야 할 효경이 어머니에게 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막이 오르면 연기는 배우에게- 미라이(未來) 공업

글 • 변택주

1973년 대만여행을 비롯해 1986년 20주년 중국여행, 1991년 25주년 세계여행, 1996년 30주년 미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2001년 35주년 세계여행에 이어 2006년 40주년에도 사원 800명 모두가 오스트레일리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45주년을 맞는 2011년에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으나 이집트 정치가 불안해 여행을 하기 어려웠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으나 마침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다.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여행을 취소하고, 여행비를 모두 피해복구에 쓰라고 피해를 입은 곳에 보내고 말았지만, 모든 직원을 5년마다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꿈같은 회사가 있다.

샐러리맨 천국

뿐만 아니라 해마다 모든 직원이 일본 여행을 하도록 해주며, 육아 휴직 3년(몇 번이라도), 연간 쉬는 날이 140일로 여느 일본 상장기업보다 20일이나 길고, 업무시간 7시간 15분으로 일본 노동기준법보다 45분이나 짧으며, 70살이 정년인 회사로 없는 것도 많은 회사. 노조도 노사분규도 없고, 출퇴근기록기도 없으며 유니폼도 없고, 사장 명령은 물론 잔업도 없고, 업무 할당량도 없으며, '해고'나 '비정규직'이란 낱말이 아예 없다. 또한 성과주의도 없이 연공서열로 줄을 세우는 회사로 직원 800여 명, 연매출 300억 엔, 창업 이래 해마다 평균 이익 15퍼센트를 꾸준히 내왔으며, 회사 보유 특허만 8,000개가 넘고, 65살

먹은 평사원 연 평균수입이 700만 엔으로 일본 기후 현(縣) 공무원보다 많고, 업계와 지역평균보다 훨씬 많은 회사가 있다. '샐러리맨 천국'이라 일컫는 미라이 공업이다.



야마다 아키오(山田昭男)회장

“몇 해 전 커다란 일본기업 한 곳에서 납품한 원자력발전소 터빈 날개가 부러졌어요. 만약 방사능이 났다면 수십만 명 목숨을 앗아갈 뻔한 커다란 사고였죠. 박사급 연구원이 가장 많은 일본 회사로 손꼽히는 이 회사가 납품한 부품에서 왜 불량품이 나왔을까요? 90년대에 10년 동안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이 2만 명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거나 비정규직으로 메웠죠. 비정규직원은 같은 일을 하고도 월급은 절반, 보너스는 10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데, 신바람 나게 일하겠어요? 돈을 아끼겠다고 한 일이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지름길 이죠.” 미라이공업 창업자 야마다 아키오(山田昭男)가 2008년 한국에 와서 던진 말씀으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짚는 울림

이었다. 1965년 8월 자본금 50만 엔으로 문을 연 미라이공업은 위기에 강했다. 1999년 사원수 701명, 매출액은 127억 엔이던 이 회사가 7년이 지난 2007년에는 사원수는 783명으로 82명이 더 늘고, 매출액은 261억 엔으로 두 배를 넘겼다. 인원은 10퍼센트 남짓 늘었지만 매출은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 일본 경제 거품이 꺼지고 오랜 침체를 맞아 닛산, 마쓰시타, 소니, 도시바 같이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수천 명 씩 정리해고를 하여 겨우 적자를 메워내던 때여서 더욱 빛났다.

거꾸로 가는 회사

혈령하게 퍼주는 회사가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

쉬어라! 놀아라! 일하지 마라! 가사社
 是인 배짱이 천국에서 노는 사원들은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나기처럼
 쏟아내 시장을 거머쥐었다. 사원이 행
 복하지 않은 회사는 가치가 없다며 사
 원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고, 경영자는
 직원에게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떡(인
 센티브)’을 주어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일본경제 거품이 빠진 뒤 많은 회
 사들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어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회사
 가 득을 봤는지 묻고 싶다면서 사람을 ‘
 비용 처리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
 는 아마다 아키오 회장. 영국 <파이낸
 셸 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경
 영자 5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는데
 서슴지 않았다. 경영 컨설턴트 조언과
 는 늘 거꾸로 간다 해서 일본 컨설팅 업
 계에서는 아마다 회장을 ‘청개구리 경
 영자라 부른다. 아마다 회장 머릿속에
 는 오로지 ‘사원 행복과 감동’이란 낱말
 이 있을 뿐이다.

사원이 기꺼워하는 일이면 관행을
 깨기도 서슴지 않는 아마다 회장에게

직원을 뽑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 1991
 년 상장을 할 때, 경리부도 없이 구멍가
 게처럼 조그맣을 때라 상장을 하려면
 부서를 몇 개 새로 만들어야 했다. 누
 구를 과장 승진을 시킬까 가늠하기 힘
 들어하던 아마다 아키오는 직원 이름
 이 적힌 쪽지 수북이 쌓아놓고 선풍기
 를 틀었다. 제 이름을 적은 쪽지가 가
 장 멀리 날아간 사원 몇 사람이 과장이
 됐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
 는 풍경이지만, 사원들에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었다. 그 뒤엔 불펜을 던져 과장을 뽑
 기도 했다. 별난 경영자 아마다 아키오
 는 일 잘하는 사원이나 못하는 사원이
 나 사람 능력은 모두 똑같다. 과장을 시
 켜 놓으면 과장 일을 하고, 부장을 시키
 면 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
 라이 공업 사원이라며 웃는다.

아마다 회장은 직원들이윗사람에게
 보고나 연락,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맡은 이들이 실무
 는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지사나 영업소

도 담당 부서장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
 이 되면 마음대로 만들도록 한다. “새로
 명함을 만들 때 명함 뒤에 적힌 지사나
 영업소를 보고 늘었구나하고 알아차려
 요. 사장은 ‘떡’을 어떻게 쥐야할까? 큰
 줄기만 세우고 가지라 할 수 있는 전술
 은 직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직원에게
 맡겨 실패한 일은 없느냐는 물음에 “보
 고 금지라서 몰라요. 그런데, 쉬는 날이
 많고 일하는 시간이 적고, 보고도 하지
 못하게 하면 외려 엉터리 짓을 하지 못
 하나봐. 하하,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려
 고 몸부림을 치던데요.”

직원들에게 주는 벌은 오직 하나 ‘남
 달리 생각하라’로, 회사 곳곳에는 ‘늘 생
 각하라’는 표어가 붙어 있다. 사원들은
 1년에 만여 건에 이르는 아이디어를 내
 는데, 시스템 개선에서 신제품 개발까
 지 다양하다. 상사 욕만 아니면 어떤 제
 안이라도 내용을 보지도 않고 500엔 주
 고, 제품에 적용하면 최고 3만 엔을 준
 다.

전등을 끈 복도는 대낮에도 어둡다.
 복사기도 두 대박에 없어 400명에 한 대
 꿀, 되도록 복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
 직원에게 연락할 때는 요금이 비싼 휴
 대전화는 쓰지 않는다. 사원식당에는
 식권도 없이 제 먹은 만큼 알아서 돈을
 내도록 했다. 바이어 접대도 사원식당
 에서 간단하게 하고, 정문 경비실엔 경
 비가 없다. 경비원을 둘 때 드는 돈보다
 도둑을 맞아 잃게 될 돈이 더 적기 때문
 이다. 아마다 회장은 에어컨도 틀지 않
 고 자가용도 없이 걸어 다닌다. 자린고
 비 경영으로 고인 돈은 사원 복지에 아
 낌없이 쓴다.

5년마다 사원들을 모두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드는 돈 1억5000만 엔을 모두
 회사가 낸다. 요즘은 여행 기간에도 영
 업 창구를 열고 있지만, 그 전에는 사원
 이 모두 여행을 갈 때는 회사 문을 아
 예 닫았다. 영업사원은 거래처에 피해
 가 같까봐 조바심을 냈더니 아마다 회
 장은 창고 열쇠 3,000개를 만들어 거래
 처에 돌렸다. 제품이 필요하면 알아서

가져다 쓰라는 말이였다.

고객만족에 앞서 사원만족

하루 노동시간이 7시간 15분밖에 되지 않지만, 회사를 세울 때부터 쉬는 날이 많고 노동시간이 짧았던 건 아니다. ‘출근시간을 조금만 늦춰 주면 애들 학교를 보내고 올 수 있을 텐데...’ ‘마치는 시간을 조금 당기면 전철이 혼잡하기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하는 사원 얘기를 귀담아 듣고, 하나 둘 들어 주다보니 작업 시간이 줄고 쉬는 날이 늘었다. 주 4일제 근무를 하려다 실패했는데, 사원들이 도로 물리자고 했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근무하는 날이 닷새인 탓에 교대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방법을 찾다 일주일에 사흘을 쉬면 풀린다는 얘기가 나와 생산량은 뒤에 따지기로 하고 바로 시행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원들은 너나들이 입을 모아 “너무 많이 쉬어 신 체건강리듬이 깨지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다”고 했다.



벤처마킹하겠다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회사를 찾는 방문객들

“고객이 ‘신’이라는 말은 낯은 얘기다. 고객만족에 앞서 사원만족”이라고 말하는 야마다 회장, 사원 하나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렇기에 아래위 구별 없이 ‘씨’라고 부른다. ‘부장’은 ‘부서’를 이끄는 사원이고 ‘사장’은 ‘회사를 이끄는 사원이라는 데서 나온 생각. 책상도 의자도 모두 같고, 유니폼을 없애고 유니폼 수당을 준다. 저마다 개성이 다른 사원에게 같은 유니폼을 입히면 개성을 살릴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1995년에는 거래처 채권 1억6000만 엔을 포기하고 같은 전기기기 제조업체에 복구자재를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거저 내줬을 만큼 번 돈을 사회에 되돌리는 일에 앞장 서왔다. 또한 창업 10주년이 되던 1975년 ‘미라이 커뮤니티 시어터’를 세워 회마다 수천만 엔을 들여 기획한 공연들은 지역주민을 모두 무료로 모시는 메세나mécénat 활동은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 문화마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전 기료를 아끼고 복사비를 줄이며 마른 행주를 짜고 또 짜서 모은 돈으로 둘레를 돕는 일을 열심히 하는 까닭이 모두 직원들 긍지를 높이는 데로 모아진다. 회사만이 희망을 연다.

함께 만들어 주세요 ~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 그리고 길상사 신도 더 나아가 여러 독자들과 따뜻한 마음과 향기로운 이야기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며 아울러 새로운 집필진을 찾습니다. 원고의 소재는 자유롭지만 청정한 마음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메세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방법 등을 제시해주거나 사회 현실에 대한 중립적인 평론, 경전에서 배우는 소중한 이야기, 건강 상식이나 건강에 좋은 음식 소개, 생각할 수 있는 만화, 그림 등 본모임의 취지와 적합한 소재라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투고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일터에서 생겨나는 소소한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 수행과 수행 생활을 통한 행복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 문의 : 02)741-4696(홍정근 사무국장)

아름다운 마무리

10월의 결연 대상자 - 이선애 어르신

“빨리 죽어야 하는데……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물에 빠져 죽으려니 내 신 건지는 사람들 고생시킬 것 같아 못하겠다. 남들과는 싸운 적 없지만 자식과는 자주 싸우는데, 남들은 빨리 죽는데 엄마는 명이 길어 빨리 안 죽는다고 한다. 그럴 때 나는 안 싸우고 아무 말 안 하고 참는다. 큰 딸, 막내 딸 다 이혼했다. 며느리도 어찌 될 지… 아프면 죽고 싶는데 간혹 안 아프면 그런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이다.”

올해 86세이신 이선애 할머니가 저희 전화말벗 자원봉사자들에게 풀어놓은 이런저런 이야기 중의 일부입니다. 할머니는 1남 3녀의 자녀가 있지만 반 지하 셋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시각장애 3급으로 오른 쪽 눈은 실명 상태이고 왼쪽 눈도 백내장으로 고생하고 있지요. 젊었을 때는 집을 4채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적도 있었지만 한 번의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고 난 후 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나이 46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나 18살 꽃 같은 나이에 시집을 갔고, 한국전쟁 때 피난 나오신 이선애 할머니는 이제 당뇨와 혈압, 천식, 골다공증약을 복용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9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요양원 입소입니다. 지지고 묶는 고단한 삶

일지라도 노인요양원 입소는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울고 싶을 때 혼자 울 수 있는 지금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아직 치매나 중풍 증상이 없지만 앞이 잘 안 보이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계셔서 주변의 걱정이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식당 주방일을 하며 본인들의 생활도 빠듯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더욱 아프기만 합니다. 어르신의 생일이나 명절 때도 자녀들이 찾아뵙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가족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할머니가 살고 계신 동네 인근의 전세 값이 최하 2,500만 원 선입니다. 전세 1,700만원에 살다가 작년부터 월세 6만원을 더 내며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인데, 내년 봄이 다시 다가오면 아예 월세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플 때를 대비해 병원비 100만

원을 모아놓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목표는 아무래도 달성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노후주택에 살고 계셔서 겨울이면 외풍이 심한데, 우선 월 10만원의 난방 가스요금이 목전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자살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세대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노후 대비를 해 놓지 않았고 국가도 미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 ‘맑고 향기롭게’가 힘겹게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시는 뜻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모집된 기부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결연후원,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사업비로 전액 집행됩니다.

- 성금 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10월 12일(토)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1번 출구
 - 10월 27일(일) 길상사 경내(진영각 아래)



학부모는 학교에서 어떤 존재인가?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35초.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건넨 말이 “밥 먹어라”/“공부해라”/“학교 가야지” 등이 전부이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안동 MBC 라디오에서 나오던 '대화'라는 캠페인 중 일부다.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녀들.

요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만 보내면 교육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길러주거나 민주적인 생활훈련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바쁘게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 학

원, 미술학원, 음악학원...으로 보내면 부모로서 책임이나 역할을 다 했다고 믿고 있는 부모들도 많다.

경쟁시대를 사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다. 이웃집 아이보다 뒤지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00네는 기러기 아빠까지 불사한다는데, 00네 집 아이는 영어발음을 잘하기 위해 혀바닥 수술도 했다는데... 극성 엄마, 치맛바람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들. 100점만 받으면, 일등만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만 올라간다면, 영재학교에 보낼 수만 있다면, 특목고, 자사고, 일류 대학에 가야

해! 최고가 돼야 해! 남보다 뒤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엄마들.....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고, 맘껏 뛰어들면서 각자가 특성을 찾아주는 교육은 불가능한 일일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따라가지 못해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 엄마가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극성 엄마들... 그런 엄마들일수록 자녀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무얼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일컬어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교육의 주체란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을 사는 부모들은 학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동 MBC라디오 캠페인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다. 아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지 오래다.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서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만 보내면 교육이 저절로 된다고 믿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은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학생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면 학생들은 어디서 사람답게 사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교육자들은, 부모들은 왜 이런 현실을 계속 모른 채 하고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할까?

교육의 주체라면서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설 공간이 없다.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살기 바빠 선생님들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미안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 자녀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야겠지만 그런 풍토도 분위기도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할 일이 정말 없을까?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물론이요, 지

역 교육청이나 학교는 학부모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은 학기 초 학부모 총회라는 모임에 잠깐 얼굴만 내밀고 오면 그게 끝이다. 구경꾼이 된 학부모, 교육위기를 보는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그런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라면서 학부모가 학교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학부모도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부모나 지역정서를 대표해야 하지만 여론수렴이나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없다. 결국 개인의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고 결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 담임선생님의 부탁으로 아침 등교지도 봉사활동, 학급급식지도를 하거나 혹은 청소도우미를 하는 게 전부다. 그런데 최근 학교와 교육청 연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교육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우리교육 2013년 가을호'에 소개된

김정인 학부모는 '학교에 첫발 들여놓기'에서 학부모 참가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부모는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활동에만 참여하거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당된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가 되면서부터 학생, 교사라는 교육주체가 아닌,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여 교육혁신을 꾀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학교총회 주체도 학교 측이 내놓은 안건을 형식적인 통관의례로 끝내지 않고 '행복한 학교, 학부모와 함께 합시다'라는 주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정인 학부모처럼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역할은 허다하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위원이 되어 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고, 학교급식 식사제에 대한 원산지 확인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급식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다. 방과 후 수업의 교육 내실을 키울 수 있는 방과 후 모니터링, 교과 선정위원회, 교원평가

위원회 등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학교교육관련 위원회에 참가하는 길도 있다.

교육청에서 하는 상담교육의 도우미로 혹은 교복공동구매의 추진 위원으로, 정규수업시간에 논술수업 명예교사로, 도요 방과 후 활동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전통놀이나 요리교실, 원예활동 등 노력하기에 따라 그 역할과 영역은 끝이 없다.

2013년 경기도에서는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일체화되어 학부모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법제화 기구가 마련된 것이다. 학부모가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학부모가 봉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학부모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지원된 재정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공교육 내실화와 자녀교육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

내 아이만 아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학교가 처한 교육 위기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학부모회. 그것은 '학부모회의 법제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단위 학교에서는 학부모규약을 제정해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부모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가 교육현장에 참여해 학교를 함께 가꿔가지 않는 한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부모는 언제까지 교육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그 사람 같은 작품들 - 구본주와 이윤엽을 보라

글 • 서정민갑(대중문화 의견가)

한 작가의 작품 안에 그 작가의 성격과 성향은 얼마나 드러나는 걸까요?

작가를 모르고 예술 작품을 보고 들을 때면 그냥 그 작품이 보여주는 방법과 메시지만을 주목하게 되지만 간혹 작가를 아는 경우에는 그/그녀의 어떤 부분이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작가를 알게 되면 작가의 성격과 관심을 떠올리면서 작품을 보게 되고 작품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게 되지만 작가를 알게 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가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단점과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과 작품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 그냥 그 작품 같은 작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는 10월 13일까지 서울의 성곡미술관에서 10주기 추모 전시를 하는 고구본주 작가와 10월 5일까지 부천의 대안공간 아트포럼 리에서 기획 초대전을 하는 이윤엽 작가가 바로 그런 작가입니다.

먼저 고구본주 작가부터 얘기를 해야겠군요.

그를 처음 만난지도 벌써 10년이 더 되었습니다. 민예총 활동가로 막 일을 시작했을 때 구본주는 민중미술관의 촉망받는 젊은 작가였고 민예총 활동가

들과도 제법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통통하고 강단 있는 몸매와는 달리 무척이나 아이 같은 미소와 장난기 가득한 눈을 가진 천진하고



故구본주작-2002년 선데이서울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세상의 고뇌를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을 쓰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예술 말고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순수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구본주 작가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정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격만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면서 자신

의 작품 안에 시대적 현실과 시대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렬하게 담아낸 훌륭한 작가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면 이미 민중미술이 더 이상 저항미술이 아니라 거대 화랑의 상업적 메커니즘 안에 포획되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는 처음에는 민중미술의 전통적인 미감으로 굳세고 당당한 민중의 모습을 담아내며 각광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람만한 크기로 만들어낸 조소작업으로 동학농민군을 담아내고, 낫을 움켜쥔 민중의 팔뚝을 되살려냈을 때 그 당당한 육체적 아름다움에는 혁명을 꿈꾸는 이들의 낙관이 고스란히 배어나왔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들의 힘찬 팔뚝과 노동이 아름다운 것임을 믿었던 초기의 작품은 다소 과잉되어 있었지만 형식화되어 있다고 치부할 수 없는 완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을 거치며 그의 작품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투쟁적인 노동자와 농민을 보여주었던 초기와는 달리 90년대 후반의 그는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 아저씨들의 남루하고 비굴하며 초라하고 지친 모습을 코믹하게 담아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눈치보고 허덕이고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상적이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지만 우리 곁에서 술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아내며 구본주는 여전히 자신의 작품 안에 우리 시대와 사람들을 껴안았습니다. 작가의 작품이 시대를 따라 변해가는 것이 이렇게 흥미롭다는 것을 그는 정말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2003년 9월 새벽 그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남겼을지 모릅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그의 유작전은 바로 그 증거이자 기록입니다. 시대를 꿰뚫어보는 당당한 시선과 힘, 따뜻한 인간애와 해학은 민중미술이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것이 단

지 정치적이거나 진보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님을 알려줍니다. 업선된 작품들이 다 좋지만 특히 성곡미술관 천장에 은하수처럼 매달린 작품 '별이 되다'를 보면 가슴 뭉클한 감동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게 됩니다.

고구본주가 2000년대 초반까지의 민중미술을 밝힌 착한 작가였다면 이윤엽은 바로 지금의 민중미술을 밝히고 있는 작가입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문화행사를 위해 배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 작업을 하러 온 그는 자신이 작가라고 밝히지도 않고 함께 해야 할 막노동 같은 작업을 노가다 일꾼처럼 익숙하게 해냈습니다. 예술가 특유의 현학도 없고 지적인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허수룩해 보이지 않았고 군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는 삶으로 말하듯, 일하는 사람 특유의 정직함과 직관이 근육처럼 배어 있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잊을 수

가 없었습니다.

관화로 찍은 그의 작품은 19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거의 버려진 민중미술의 작품(作風)이었습니다. 한 때 민중을 우상처럼 떠받들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내지 않는 시대에 마주친 이윤엽의 작품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강렬했습니다.

몸으로 일하지 않고, 땅을 껴안으며 일하지 않고, 돈과 욕망과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땅 같은 마음임을, 땅을 껴안고 일해 온 이들의 마음임을 일러준 것입니다.

지금 아트포럼 리에서 열리고 있는 그의 전시회에 가보면 투박하지만 진실하고 힘 있는 작품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달콤하지도 않고 매끈하지도 않으며 화려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은 작품입니다. 색도 화려하지 않고 관화 속 사람들은 쉽게 웃지도 않아 무표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는 본질을 꿰뚫는 명쾌함



이윤엽작-작(땅/우)붉은손

이 있고, 에둘러 말하지 않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써서 일하고, 자연과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온 사람들,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사람들, 우리가 민중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도시로 떠나거나 도시가 되어버린 시골에서 쉽게 찾을 수 없고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없이는 잠시도 세상이 돌아가지 못할 세상의 기본 같고 바닥 같은 사람들의 건강함과 지혜와 힘이 그의 작품에는 면면히 배어나옵니다.

아름답다기보다 견결하고 진실한 작품입니다. 이윤엽이 되살려낸 오래된 미래를 꼭 만나보시길.



법정스님! 부르기도 가슴 저린 이름입니다.
 계신 곳은 편안하시지요? 이곳에 계속되는 장마가 우울하게도 하고,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도 주세요.
 며칠 전 스님 생각이 잠깐 났어요.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낸 시간이 길었나 봅니다.
 오늘은 시간이 주어져 스님 뵙고 갑니다.
 여기 진영각은 스님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편안히 누워 계시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도네요.
 세상과 소통했을 라디오가 눈에 들어와 더 많이 아픈 아침입니다.
 새벽에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이곳에 계곡 같은 느낌이 나네요.
 스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행복하겠습니다.

☯

스님! 길상사가 좋아서, 우리 꽃이 피는 모습이 좋아서
 여러 차례 왔었지만 진영각은 처음 올라왔습니다.
 장마 끝이라 시원한 계곡물소리에 마음의 티끌을 씻고,
 스님을 뵈오니 불현듯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 하나를 담아갑니다.
 스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

스님 저는 백00이라고 해요.
 제가 4학년인데 공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오빠랑도 자주 싸워요.
 할머니도 몸이 편찮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절도 자주 다니고, 절하고 소원을 빌 테니까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지내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스님

☯

이 시간, 공간 허락해 주시고, 혼자 온연히 느낄 수 있어 감동적입니다.
 자연의 숨소리, 생명의 지저귀, 저에게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랑 아주 많이 닮은...
 사랑이 부족해보여, 큰 사랑 참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
 그간 덧없이 그저 남을 의식하며 정신없이 지나왔네요.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하셨죠?

저도 실천하며 살아왔는데 욕심과 이타적인 마음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108정진 하지만, 이게 저의 노력의 한 부분이겠지요.
 아직도 지혜가 뭔지, 생활의 능력이 뭔지, 인간의 권한이 어디까지
 사용해야하는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돈이든, 사랑이든, 자식이든, 자유로워지려합니다.

이 올라오는 마음들 다 어찌 내려놓을까요?

깨워서 맑게 따뜻하게 가치 있게 일 시작해 볼까 하네요!

부디 힘이 되어 주세요! 간절히!

☯

엄마 아빠랑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촌동생과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 법정스님의 맑은 향기를 느끼고자 많은 분이 오십니다. 진영각 뒷
 마루에 앉아 남겨주시는 이야기들이 스님께 꼭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긴 글 중에 몇 개 골라 소식
 지에 답합니다. - 편집자 주

吾心之茶 오심지차

글 • 문정숙(차문화연구가)

한국 차 문화의 선도자 이목(李穆)

이목(1471-1498)은 오늘날 한국 차 문화의 선도자로서 재평가되어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연산군 4년에 윤필상, 유자광, 이극돈 등 훈구과가 성종실록 사초(史草)의 '조의제문'을 구실로 김종직 학파인 사림파를 포함하여 많은 선비들이 억울하게 처형당하였던 무오사화(1498)에 연루되어 2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형 집행 시에도 전혀 안색의 흔들림이 없이 스스로 절명가(絶命歌)를 지어 부르며 평상시의 당당한 기품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이목 집안의 가풍은 검소하고 청렴하였으며 문중의 제례홀기에는 반드시

차를 올리는 예가 있었다.

그의 저서 『다부(茶賦)』에 새겨진 다도정신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와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의 후손 들은 이목의 묘역에 차밭은 가꾸고 매년 6월이 되면 그 밭에서 채취한 찻잎으로 만든 햇차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며 이 시대 차 문화의 초석이 된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목을 추모하는 한재당(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가금리)은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다.

『다부』에 새겨진 다도정신

『다부』는 조선 전기 김종직의 다맥을 이어받은 이목이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다도사상을 체계화하

여 저술한 다서(茶書)이다. 『다부』는 형식상으로 보면 부(賦)라는 운문체의 산문으로서 시적 성격을 지닌 다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서문인 병서에는 저술동기, 차의 본성과 본질적 가치에 대해 소개되어 있다. 이어 본문은 차의 종류와 주요산지, 차 달이기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차의 직접적 효능(五功)과 오랜 음다생활로 인해 심성을 변화시켜 얻는 간접적 이로움(六德)이 기술되어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선비의 길을 걷는 자신과 험한 자연 속에서도 맑고 곧은 품성을 잃지 않는 차와 대비시켜 차와 자신이 합일되어가는 구도자적 삶을 그려내고 '吾心之茶(내 마음의 차)'로 승화된 독자적인 경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오심지차'는 『다부』의 정화(精華)이자 『다부』의 결론으로서, 진리의 보편성을 인간의一心에서 찾고자 했던 그가 차의 내면적 본질을 통해 체득한 다도정신의 결정이다.

혼탁한 시류에 영합할 수 없었던 그

는 차의 본성을 진중하게 여겨 그 성품에 대해 탐구하여 터득해나가고자 하였으며 차의 기호에 치우치지 않고 그 내면적 본성에 심취하였다.

그는 마음을 다스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때야 비로소 현묘한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된 공명정대한 마음을 갖대삼아 생사와 양생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중국 위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이며 노장학파로서 『양생론(養生論)』으로 유명한 혜강은 생사의 구분이 분명한 만큼 현생을 중시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에 이목은 인간의 생을 선대의 조상이라는 뿌리에서 줄기와 잎이 나온 것이라 인식하였으므로 삶과 죽음은 그 경계가 단절되어 있는듯하나 실제로는 연결되어있어 피차의 근본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智者)은 사리에 통달하여 어느 것이든지 막힘이 없어서 물과 유사한 까닭에 물을 좋아하



며, 어진사람(仁者)은 의리 지키는 것
을 편안히 여겨 중후한 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산을 즐긴다.'는 요산요수(樂山
樂水)로서 마음과 몸을 함께 다스리는
유가적 삶은 신체의 불로장생만을 꿈
꾸는 도교의 양생론과는 비견할 수 없

음을 강조하였다.
비록 『다부』의 내용이 노장사상을
수용하여 전개되었지만 이목은 『양생
론』의 한계를 인지하고 심(心)을 중시
하는 유가의 가르침으로 귀결하고자하
였다.

내 마음의 차 (吾心之茶)

『다부』 중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노라
내가 세상에 태어남에 풍파가 모질도다
양생에 뜻을 들진대 너(茶)를 버리고 무엇을 구하리
나는 너를 지니고 다니며 마시고 너는 나를 따라 노니나니
꽃 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
즐거워 삶증이 나지 않네
내 항상 마음속으로 삼가며 말한다네
삶은 죽음의 근본이요 죽음은 삶의 뿌리이다

오직 마음(心)만을 다스리면 바깥(身)이 시들기에
혜강은 양생론을 지어 어려움을 몸소 실천하였다지만
어찌 지자가 물에서 빈 배를 띄워 즐기고
인자가 산에서 오곡을 심는 것과 같으리
정신이 기운을 움직여 묘경에 들어가면
즐거움은 피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게 된다
이것이 또한 내 마음에 있는 чай이거를
또 어찌 다른데서 구하리요



중앙모임 (02-741-4696~7)

- 내가 만들어 쓰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 -

1. 천연 헤나 샴푸

- 헤나 잎에서 추출한 모발 기능성 재료로 두피 중화와 피지 과다 분비 억제, 탈모 예방 및 비듬 제거에 효과적

2. 세라마이드 로션

- 세라마이드는 각질층의 구조 형성이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 성분으로 피부 건조를 막고, 피부노화방지 및 주름 개선 등에 효과적

3. 한방 상백피 에센스

- 뽕나무의 뿌리껍질에서 추출한 재료로 피부 미백 효과가 뛰어남

4. 한방 비누

- 5가지 한방 가루를 재료로 하며, 적당한 세정과 지장능력, 염증성 질환 치료 및 피부 진정에 효과적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화장품?

시간 내서 직접 만들어야 하는 귀찮음과 보관도 잘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원료의 차이'입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이기에 합성재료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 안전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좌신청은 전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수시 접수받으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대기자로 접수됩니다. 또한 매월 연속 참여는 불가능하며, 신청 후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대기자를 위해 3일 전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참고: 겨울철에는 빈자리가 종종 있으므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 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 장소 : 샴푸, 로션, 에센스 - 길상사내 세계일화실
한방 세안 비누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옆)
- 화장품 만들기 일정은 본모임의 일정, 강사의 사정 등으로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
- 문의 : 02)741-4696, 직통 070-4619-4802(담당 : 김소영 팀장)



봉사자를 위한 숲기행 - 11월 2일 충남 아산 외암마을

2013년 정기 숲기행 일정을 10월 5일 충남 부여 반교마을을 끝으로 마치고 11월 2일 '자원봉사자를 위한 특별한 숲기행'으로 충남 아산 외암마을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본모임과 인연을 맺으면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봉사자들과 떠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에 다녀올 외암마을은 예안 이씨의 집성촌으로 60여 가구 1백70여 명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곳으로서 마을 주변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집 뒷밭에 채소를 가꾸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마을은 초가집이 주를 이루지만 멋들어진 한옥도 20여 채 있는데 참판댁, 감찰댁, 참봉댁 등 지낸 벼슬의 이름을 딴 가옥들이라고 합니다.

마을은 하나의 숲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전국 아름다운 마을 숲' 대상을 받을 정도로 숲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낙락장송들과 당산나무가 돌담길, 초가, 한옥과 어우러져 편안함을 주는 마을입니다.

11월 숲기행 참가를 원하는 분은 10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선착순 40명 접수를 받으며, 전화 신청후 3일 이내에 입금하셔야 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간식, 모자, 필기구, 등산화 착용 필수
- 참가비 : 정기 봉사자에 한해서 1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사)매품 향기롭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13 매품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 안내

- 일정 : 11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 17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매품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참가비 : 수도권(서울, 경기) - 20,000원, 비수도권 - 10,000원
- 참가 조건 : 회원 회원, 정기 자원봉사자에 한함
-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양말, 따뜻한 옷, 간편한 티셔츠, 개인물병(어컵), 운동화나 단화, 필기도구
- 접수 : 10월 10일(목)부터 전화, 방문, 봉사팀별 접수
- 참가자 전원 법정기념일 저서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전국 사무국 상근 활동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10일 매품 향기롭게 전국 사무국 활동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함께 길상사 경내를 둘러보고, 법정기념일 진영각에 참배를 드리고 이사장 스님과 차담을 가진 후 매품 향기롭게 운동과 활동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었습니다. 그리고 후원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안내와 매품 향기롭게 매뉴얼 작업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후원통합 시스템은 법인을 포함한 각 지역모임의 회원관리를 원활하고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매품 향기롭게 심벌, 로고, 캐릭터에 대하여 고현 광주본부장님이 1년간의 연구와 작업 끝에 매뉴얼 작업을 하였습니다. 심벌 매뉴얼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1993년 9월 연꽃 캐릭터가 첫 시안된 후 20여 년 동안 중앙을 비롯하여 각 지역모임에서 연꽃 캐릭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오면서 제대로 된 교과서가 없다보니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대로 된 나침반, 이정표를 확립해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들간 진행된 논의사항에서는 매품 향기롭게의 정체성 확립, 중점적인 사업 육성, 중앙모임과 지역모임의 사업 공유, 지역모임 활성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서로 공감하는 내용이었으며, 예산과 인력의 해결이 가장 절실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매품 향기롭게 운동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써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부터 지역모임 사무국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실무적으로 방향을 잡아보자는 약속을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원활동 안내

■ 노인요양원(진인요양원, 모희원) 봉사 활동
진인요양원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합니다.(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함께 출발) 모희원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함께 출발/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상담해주시어야 합니다.

■ 친환경 실천 캠페인 함께 하실 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친환경 수세미 뜨기, 친환경 달거리 만들기,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각종 소품 리폼, 녹색나눔장터에 도움을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봉사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이용시설로서 매일 2,0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점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고,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센터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또한 배식 관련 활동상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하며 미소지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의 여유

길상사로 가을 나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



습니다. 회원님이나 봉사자께서도 길상사에서 오셔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을 때 마땅한 장소가 없으시다면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차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 쉬면서 중앙모임의 활동에 대해 소소한 이야기나 세상은 재미난 이야기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닌신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후원내역 -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 가능

현재 중앙모임 후원회원은 홈페이지에서 <나의 후원내역>과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해야 가능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정보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 중인 분께서는 사무국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할 것이며,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국세청으로 등록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10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2일(수), 오전 10시~12시/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목요일(10,17,24,31일)/금요일(4,18,25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영남이 문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7, 14, 21, 28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3,20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화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6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명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목요일(17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10월 12일(토)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1번 출구 / 10월 27일(일) 길상사 경내(진영각 아래)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2,16,23,30일(수)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척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숲기행/첫째 토요일(5일)/충남 부여 반교마을
 - 사랑나눔연합바자회/26일(토)/성북 초등학교



광주모임 (062-236-3129)

10월 정기 활동 안내

- '공양 나눔 센터'에서 동참해 줄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30분에서 오후2시까지 진행되는 활동에 선행을 베풀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통층 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 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부터 광주모임에서는 금강경 독송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평생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독송하고 알아가는 금강경시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광주모임으로 문의해주세요.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10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

- 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롬비나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퇴실리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10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매월 첫째 주 /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10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 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3 / 이상오

대전모임 (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 기도

- 일시 : 10월5일 (오후7시~9시)
- 장소 :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10월12일 (오후9시~다음날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0월12일 (오후8시30분~다음날오전4시까지)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10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둘째 주말 12일(토)~13일(일)
넷째 주말 26일(토)~27일(일)
- 참가비 : 5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대입 수능 100일 기도 안내

2014년도 수험생 자녀들의 원만합격을 기원하는 대입수능100일기도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기간 중 입시특별기도가 아래와 같이 봉행되오니 수험생 부모님과 불자님께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시어 원하시는 바

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 7월31일~11월7일
- 시간 : 오후2시~오후4시까지
- 장소 : 극락전

중양절 접수안내

음력 9월9일 중양절에 기재일을 모르는 조상영가 및 자손 없는 영가의 재사를 봉행합니다.

동절기 예불시간 변경안내

10월부터는 저녁예불이 1시간 앞당겨진 오후 6시로 조정됩니다.

스리랑카 성지순례 안내

나라 곳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교유적지로서 살아있는 불교의 나라 이곳으로 해외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길상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11월 2일	오후 7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11월 3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11월 9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11월 9일	오후 8시30분	극락전
추계관음기도회향	11월 16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동안거결제법회	11월 17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동안거90일 관음기도입재			
지장재일	11월 20일	오전 9시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1월 26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4시/오전 9시50분/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셋째 일요일	오후 3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도서관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1시20분	소강당

'2013년 사랑 나눔 연합바자회'에 초대합니다

종교는 한 마디로 사랑의 실천이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보살행, 자비행은 깨달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익혀가는 정진이다.
기독교적인 사랑과 불교적인 자비는 사실 똑같은 것이다.
사랑은 가볍고 자비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법정스님-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에서 표현된 것처럼 성북동은 해방 후 성 밖 언덕과 '성북천' 개울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민주택과 근대화와 산업화로 개발된 고급주택가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의 양극화된 도시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북동에 "종교는 다르지만 나눔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덕수교회와 성북동 성당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으로 연합바자회를 2008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 맞이하는 이번 바자회는 다양한 먹거리, 식재료, 의류, 생활용품 등이 마련되며,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는 경품추첨시간을 가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행운의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모여진 수익금은 전액 성북구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오니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천 시에도 바자회는 열립니다.)

☞ **일정** : 10월 26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장소** : 성북동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